

흠어진 청년정책·기관 한곳으로

광주시 2026년까지 53억원 들여 통합플랫폼 구축 일자리·주거 등 연계 강화...다음 달 용역기관 선정

광주시가 빨빨이 흠어져 있는 청년정책간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과 지원기관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 통합플랫폼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 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8개월간 원스톱 서비스 체계 밑그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4개에 이어 올해는 93개로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했음에도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해 지역 청년들과 가진

소통 행사에서 "청년 정책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바라는 만큼 청년 부채실태조사, 정책사업 사례 빅 데이터화 작업 등을 한 묶음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일단 국비 37억원, 시비 16억원 등 53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민간 위탁 기관들을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플랫폼의 위치, 규모, 입주 대상 기관, 시설 등은 용역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직을 돕는 드림 수당을 받고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정책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책·기관 간 소통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분야별 청년지원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통해 지역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시는 매년 국·사비 등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광주 청년인구는 2020년 41만400여명에서, 2021년 40만3996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39만2484명으로, 40만명의 벽마저 무너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태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현지시간) 태국 노동부에서 수차 총클린 장관을 만나 전남도와 태국 노동부 간 상호 교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태국, 조선·농어업 일자리 협력 강화

김영록 지사 태국 방문...노동부 장관에 인력 도입 협력 제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도 내 농어업, 조선업 등을 위해 직접 태국 정부와 인력 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태국 정부는 향후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남도는 17일 "태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방콕에서 수차 총클린 노동부 장관을 만나 전남도와 태국 정부 간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농어업 근로자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인력난이 기승을 부리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 치중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를 태국 등 동남아로 다양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지사는 전남도의 건의로 최근 정부가 제도 개선한 ▲연간 조선업 기능인력을 2000명에서 5000명 확대 및 별도 쿼터 신설 400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대기 중인 비자 신속 처리 ▲지역특화 비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조선업 1200여 개를 포함해 농어촌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수차 총클린 노동부 장관은 "태국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일할 기술을 가진 근로자뿐 아니

라, 제조업·농업 분야 인력이 많다"며 "촌부리 지역이 조선 기능인력, 제조업 인력이 많은 지역이므로 전남도와 촌부리 간 우호협력관계를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 차원의 태국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조선 등 기업이 먼저 인력수요를 파악해 요청하면 기초자치단체 간 인력 도입을 위한 협약을 하고, 전남도와 태국 광역단체 간 교류 확대도 이뤄지도록 태국 정부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를 계기로 태국 정부 및 광역단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 유치 본격화

전남도 규정 정비...연평균 30곳 유치해 청년 일자리 창출

전남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본격 나선다.

관련 규정 정비로 연평균 30여 개의 지식정보문화기업을 유치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민선 7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전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업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해 지식정보문화기업 신규 투자 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지침 전부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보조금 지원 기준이다. 기존에는 창업·이전·지사기업과 도내 기업을 나눠 보조금 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으나 전부개정을 통해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한 도내 지식정보문화법인으로 협약 이후 상시 고용 인원을 최소 3인 이상 채용하면 모두

동일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고용인원 3~23인 기준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보조금 개시 신고일로부터 1년 후 3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

또 근무 인원의 도내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였다.

시행지침 시행에 앞서 전남도가 시군 담당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개최한 설명회에 지식정보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약 50여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투자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시책을 홍보하고 협약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식정보문화산업 분야에 보조금을 신설해 총 141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으며 76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해 19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직자들 '절수' 동참 호소

상가 3만7600곳 돌며 수압 저감 캠페인...97개 행정동에 협조문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직자들은 17일 지역 상가를 돌며 수압 낮추기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공직자들은 이날 오후 속박업소 등 상가 3만 7600여곳을 대상으로 수압 저감 캠페인을 벌였다. 97개 행정동을 구역별로 나눠 홍보 물품과 협조 호소문을 전달했다.

강기정 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어깨띠를 매고 시민, 상인들을 만나 동복댐 고갈 위기 등 가뭄 심각성과 물 절약 요령을 알렸다.

광주시 공직자들은 이날 물 절약 호소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시민들께서 지난해 11월부터 물 절약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제한급수 위

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제한 급수가 이뤄지면 특히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절수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수압 낮추기 운동에 동참한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의 물 절약과 함께 광주시는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영산강 물을 끌어와 공급을 늘리고, 관정 개발과 보성댐 물 등을 동복댐·주암댐으로 가져오는 등 물 공급을 늘리는데 힘쓰고 있다"면서 "수압저감 실천운동에도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 연휴 앞 전남 낚시어선 안전 점검

도, 27일까지 승선자 명부 작성 등

전남도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낚시어선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사고 이력이 있는 관내 낚시어선 40척이다. 전남도와 연안 시군, 해경, 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단체 등과 함께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항 전 안전점검 실시 및 비상대응 요령 안내, 구명조끼 착용, 승선자명부 작성과 신분증 대조 확인 여부 등이다.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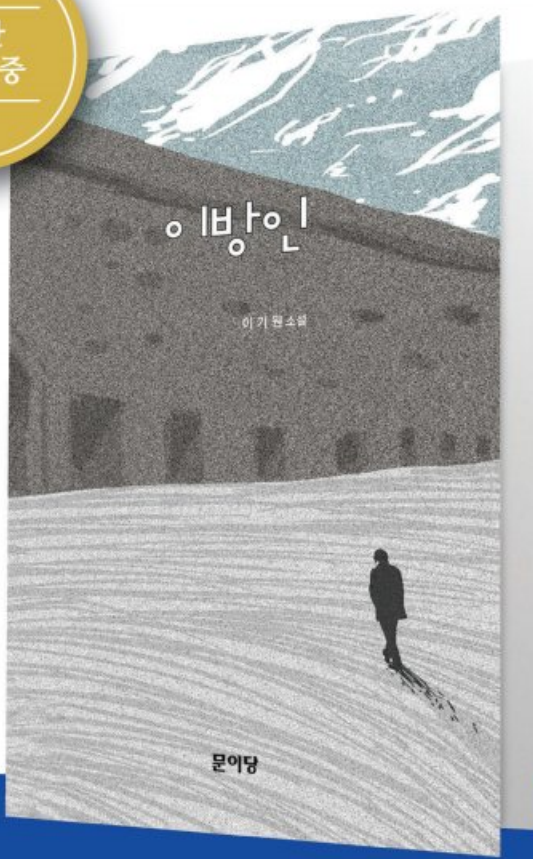
설 연휴를 포함한 전후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시기다. 전남도는

최근 낚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낚시어선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기관 손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국내 다수 낚시어선이 사용 중인 주요 엔진 정비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박영재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